

Production & Expression

왕현민 교수님



8조

20200360 이가현

20201173 서현지

20210929 윤채영



Contents

01. Reference

02.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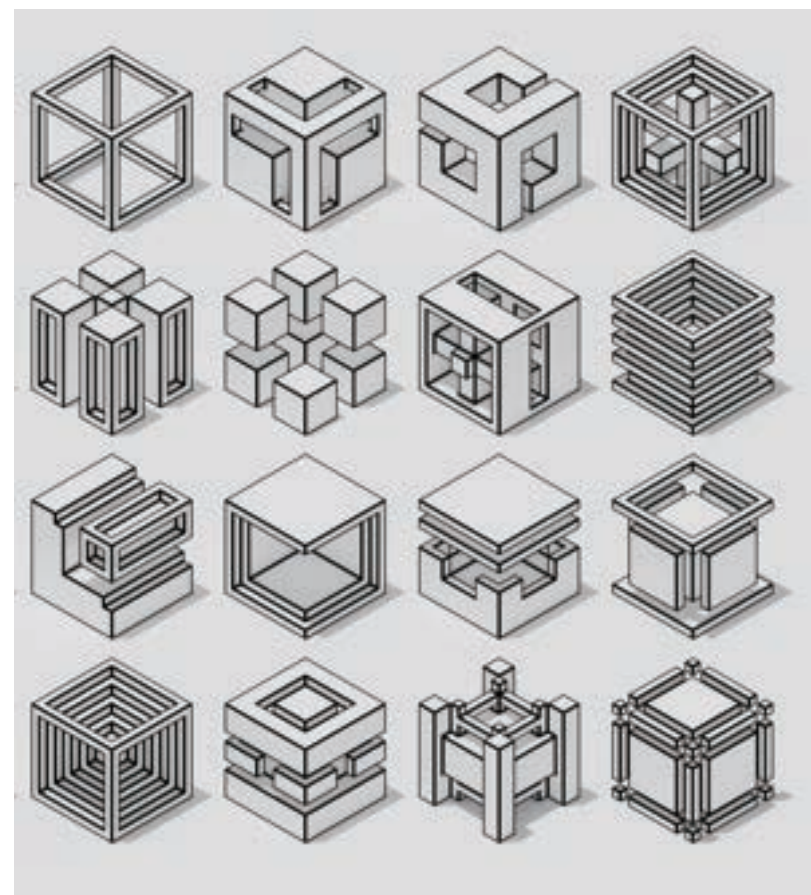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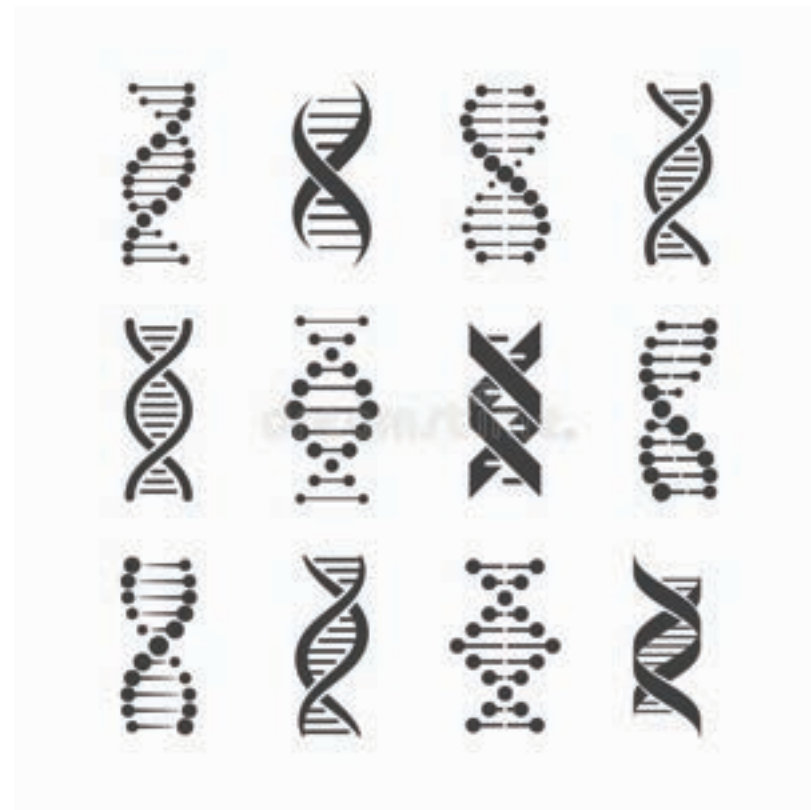
03. Idea Sketch

04. Concep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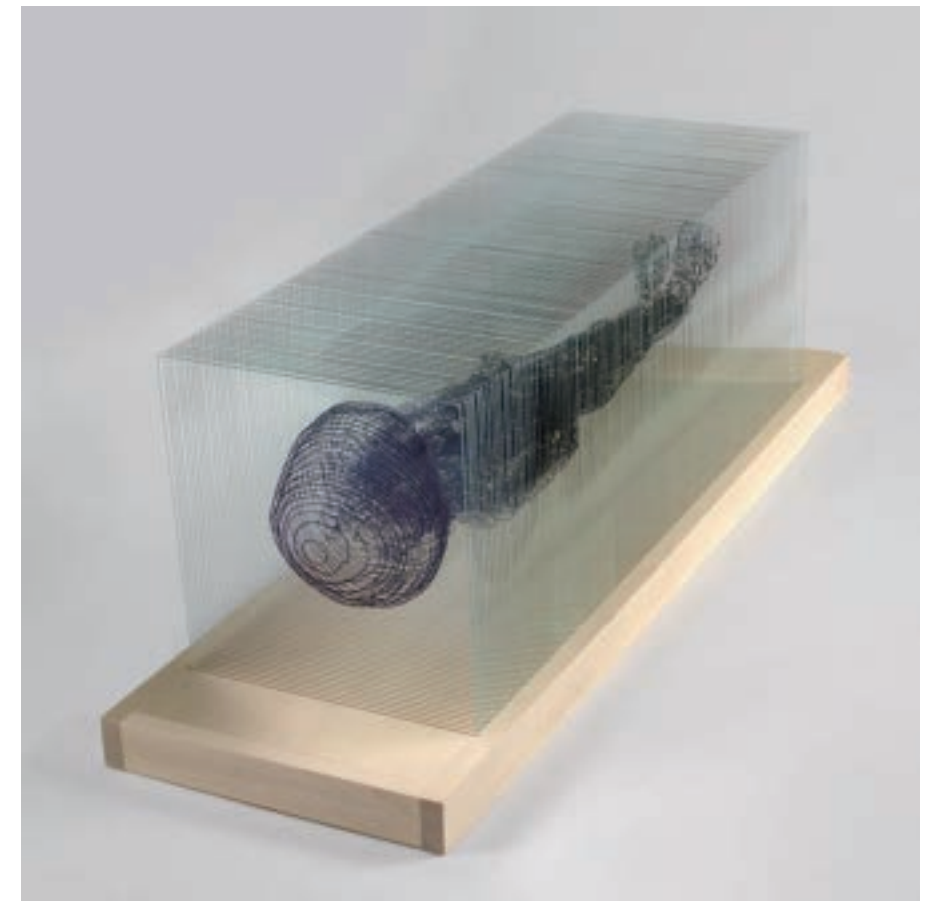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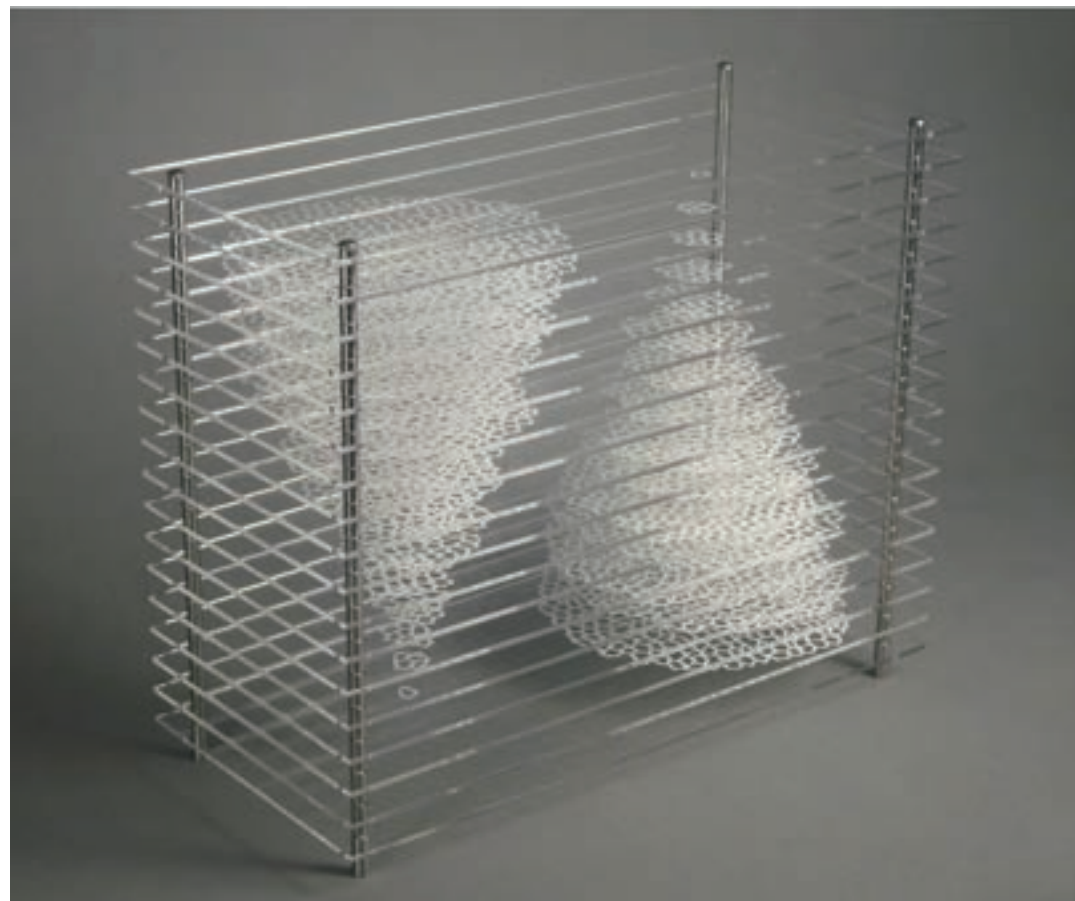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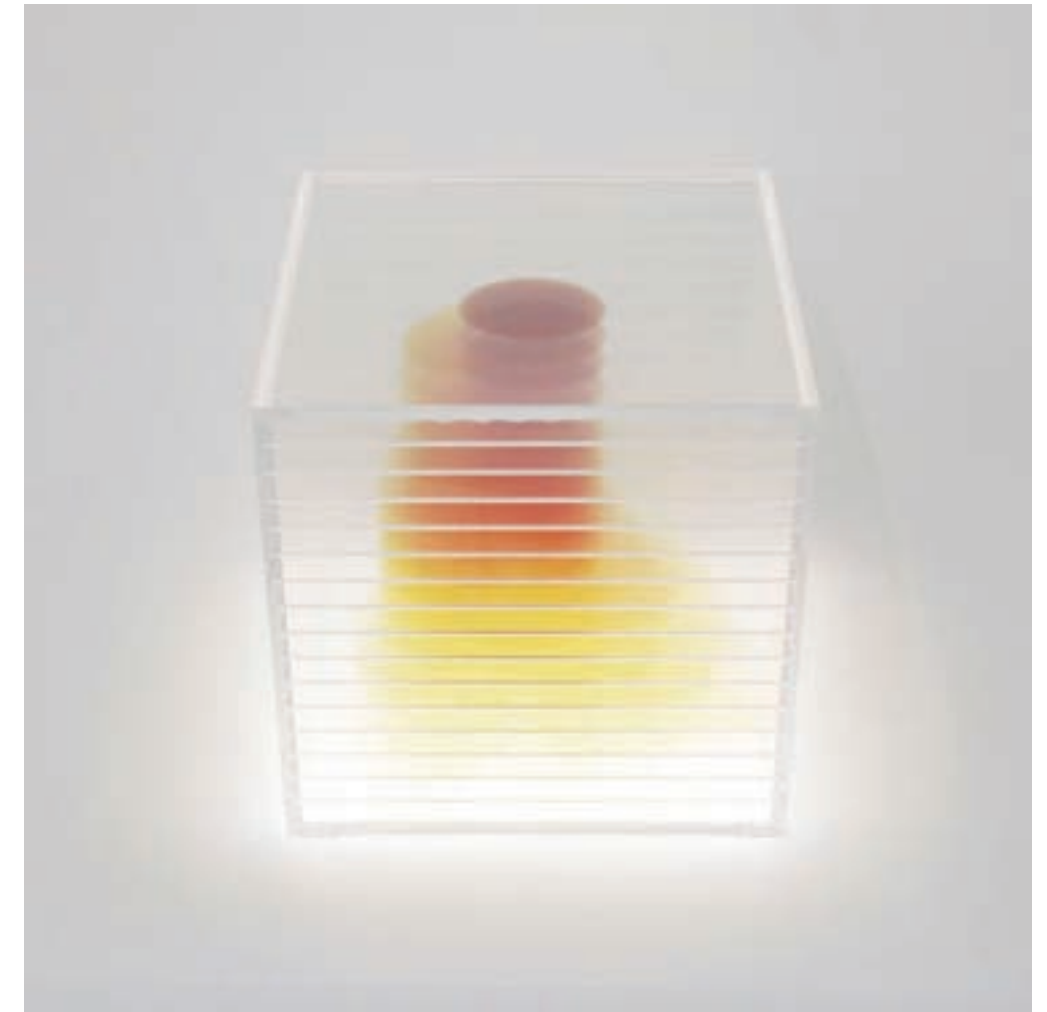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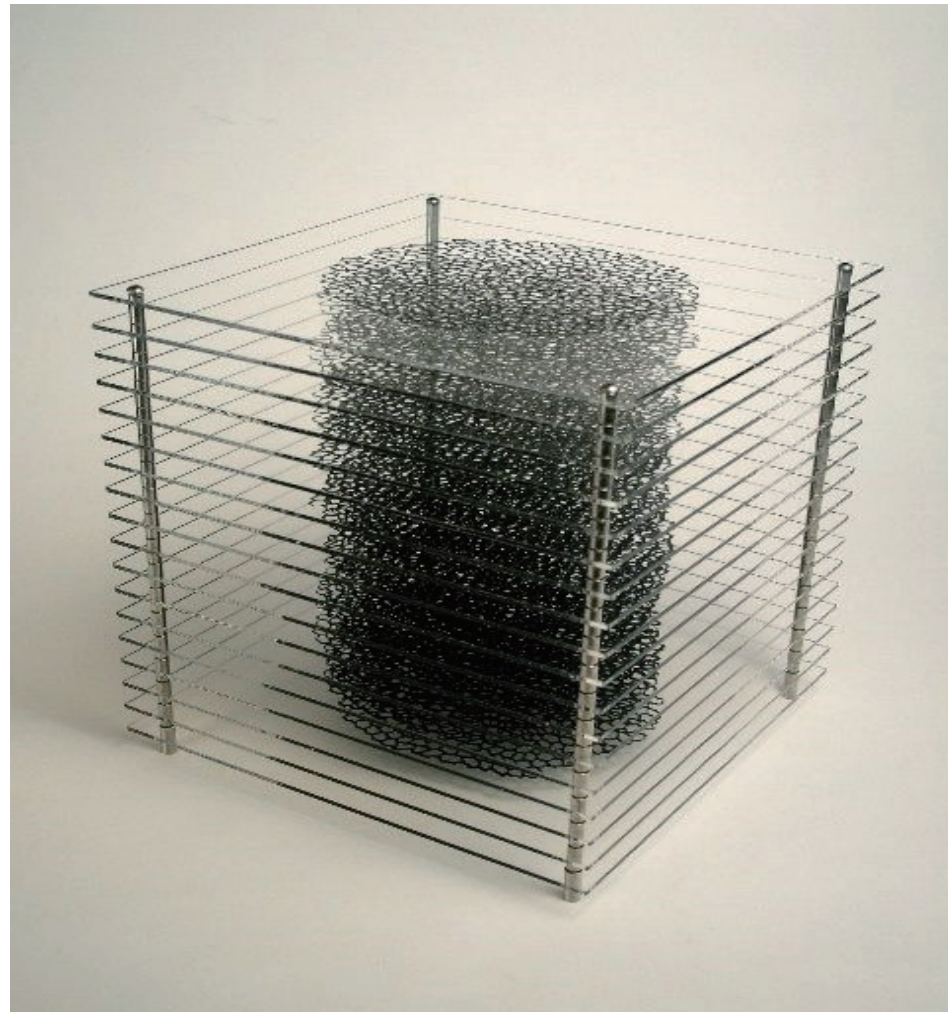
05. Dot / Line / Face

06. Naming

Reference



Reference





BAHK Seonghi

1966~ 박선기

2003 존재 (인사아트센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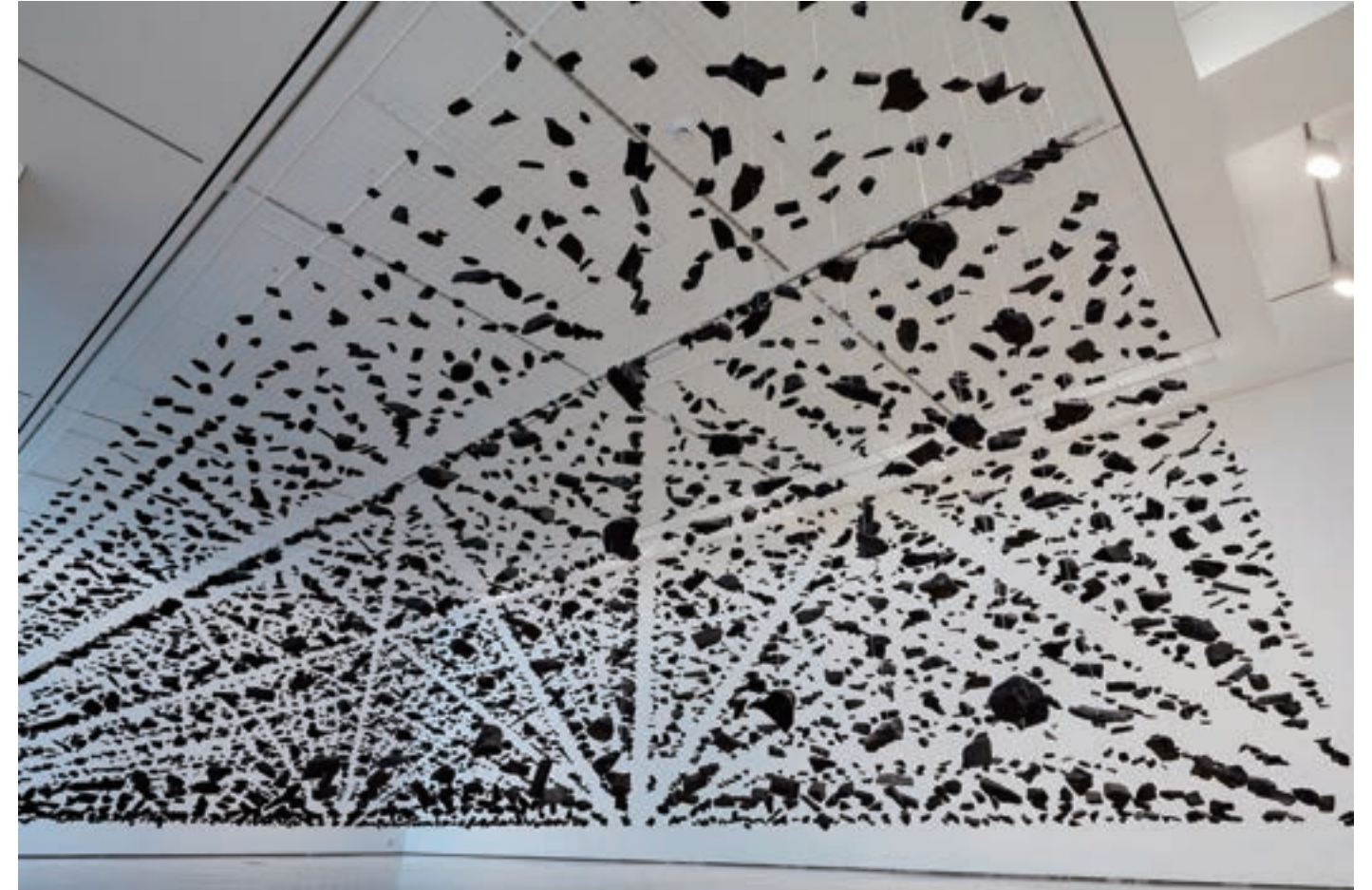
2005 Point of View (김종영미술관, 서울)

2012 A Slice of Sensitivity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15 View-tiful (우양미술관, 경주)

2016 리플렉션-색즉시공 (313 아트프로젝트, 서울)

2017 자연 (갤러리비케이, 서울)



2차원의 회화는 평면의 캔버스에서 실존하는 사물을 묘사할 때 3차원의 입체로 표현하기 위해 애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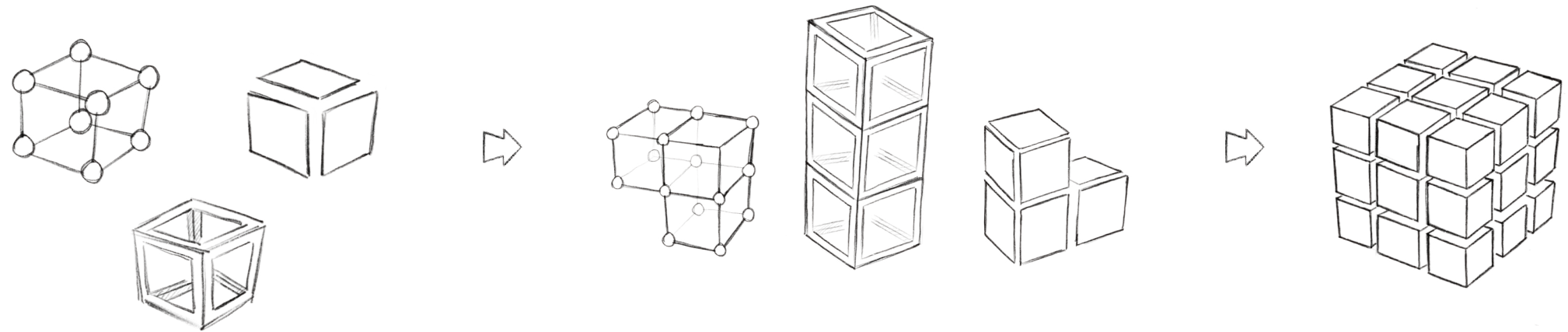
3차원의 조각은 현실을 그대로 구현하는 대신 개념을 담거나 변형하거나 형태나 재료를 탐구하고, 비현실적인 질료를 결합한다.

그리고 더욱 확장된 3차원, 즉 공간을 의식하고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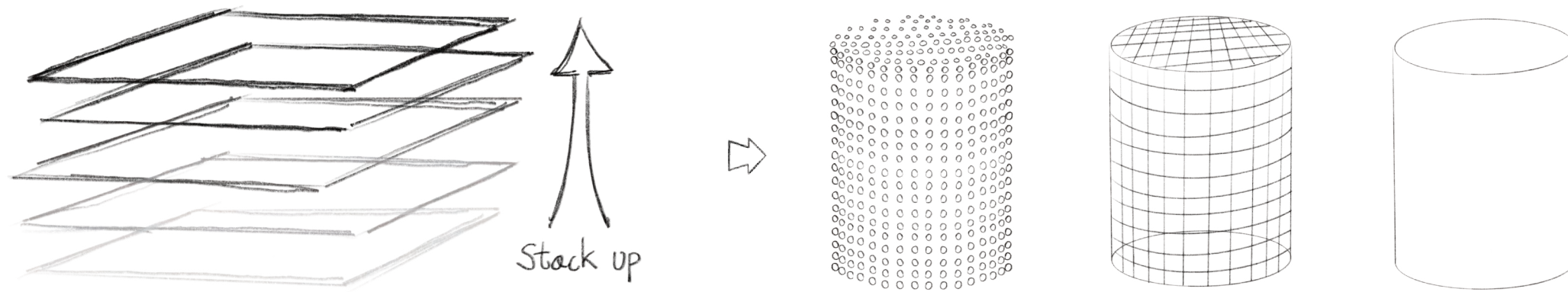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선기 작가의 작품은 여기에 질문을 던진다.

Keyword

Dimension	Flat	Repetition	Vision
Face	Solid	Shape	Gaze
Rule	Dot	Illusion	Line
2D	3D	Light	Point
Stack	Change	Rectangle	Box
Circle	Cylinderhar	Lamp	Shade



Idea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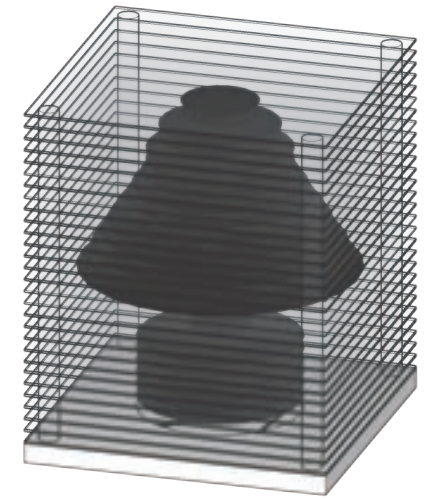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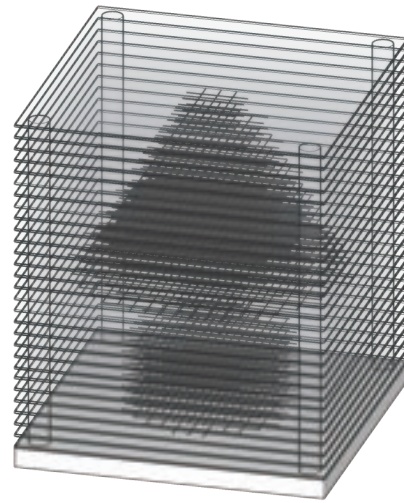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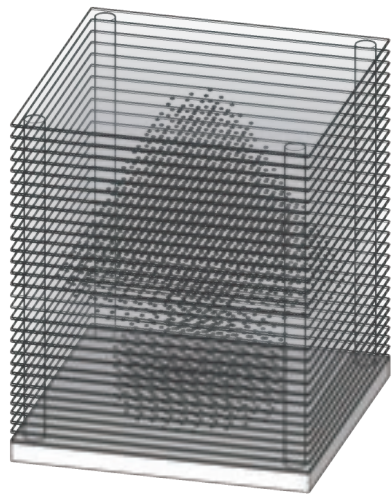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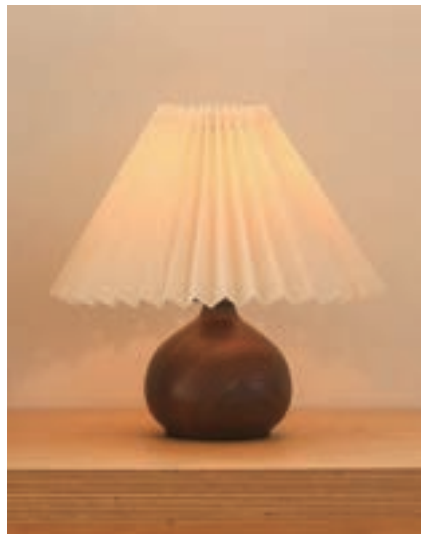


“ 시각적 차원의 변화 ”

점 · 선 · 면 입체로 구성된 차원

Concep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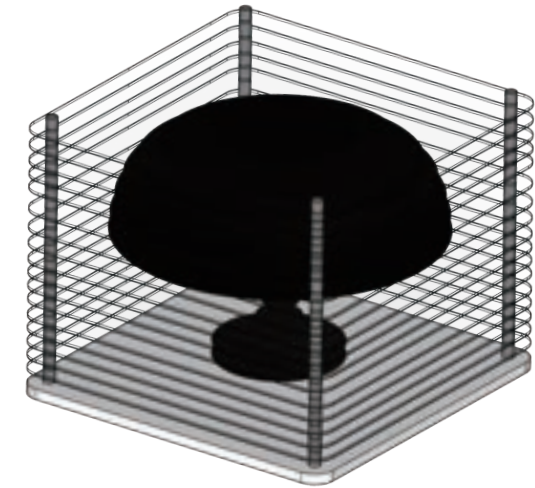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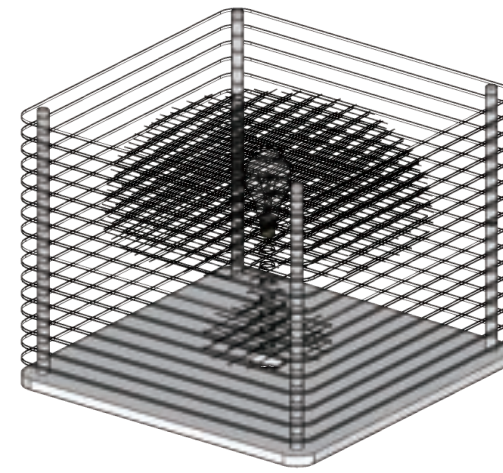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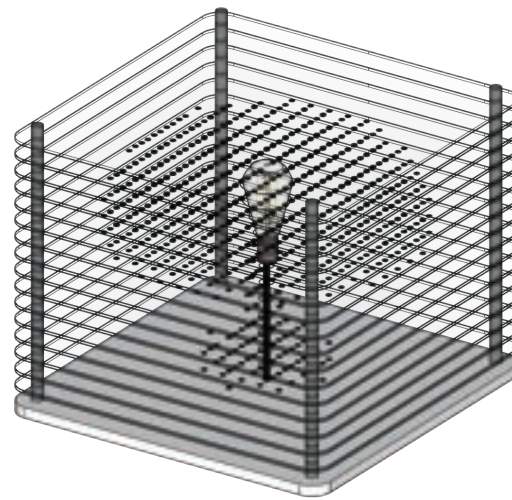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가
점, 선, 면이라고 생각했다. 한 물체를 구성하는 게
한 가지 요소만이 아닌 여러 요소가 모여있는 것이 특징으로
점, 선, 면이 존재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요소로 만들어 낸다.



가장 사실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인 시각에 시점을 변화하여 나타낸다.

0차원인 점, 1차원 선, 2차원 면을 담은 평면 아크릴을 쌓음으로써 차원을 확장한 3차원 입체로 구성한다.

사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으로 시선의 착각을 일으키며 스탠드 조명의 형태가 보일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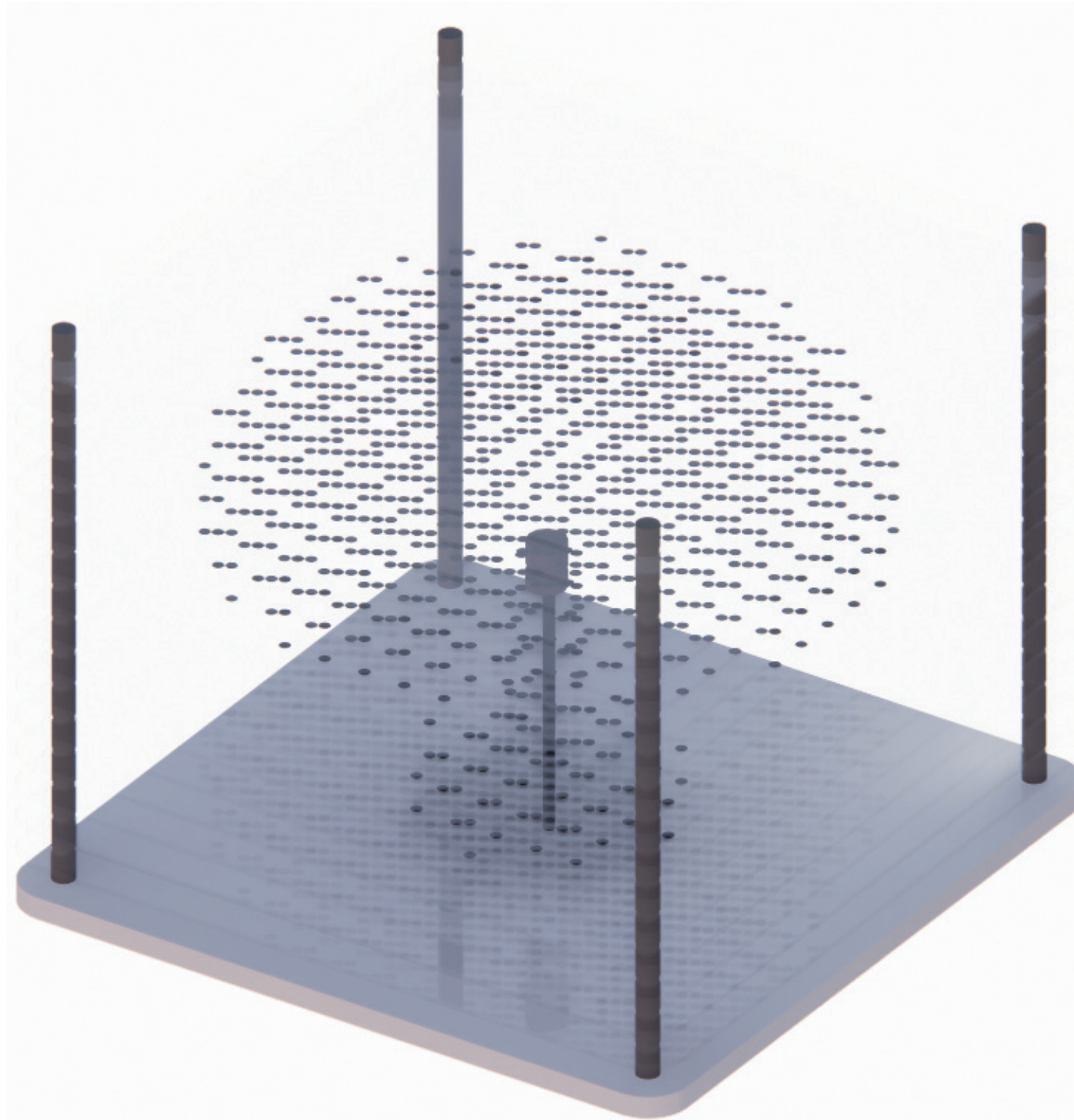


조명하면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의 형태가 아닌 Artemite의 버섯 조명을 따왔다.

‘Artemite’의 버섯 조명을 참고하여 위가 막혀있는 버섯을 형상화 하였고,

Artemite 버섯조명의 외관이 주황색이기에 많이 쓰이는 하얀색의 전구가 아닌 주황색의 전구를 사용하였다.

1. D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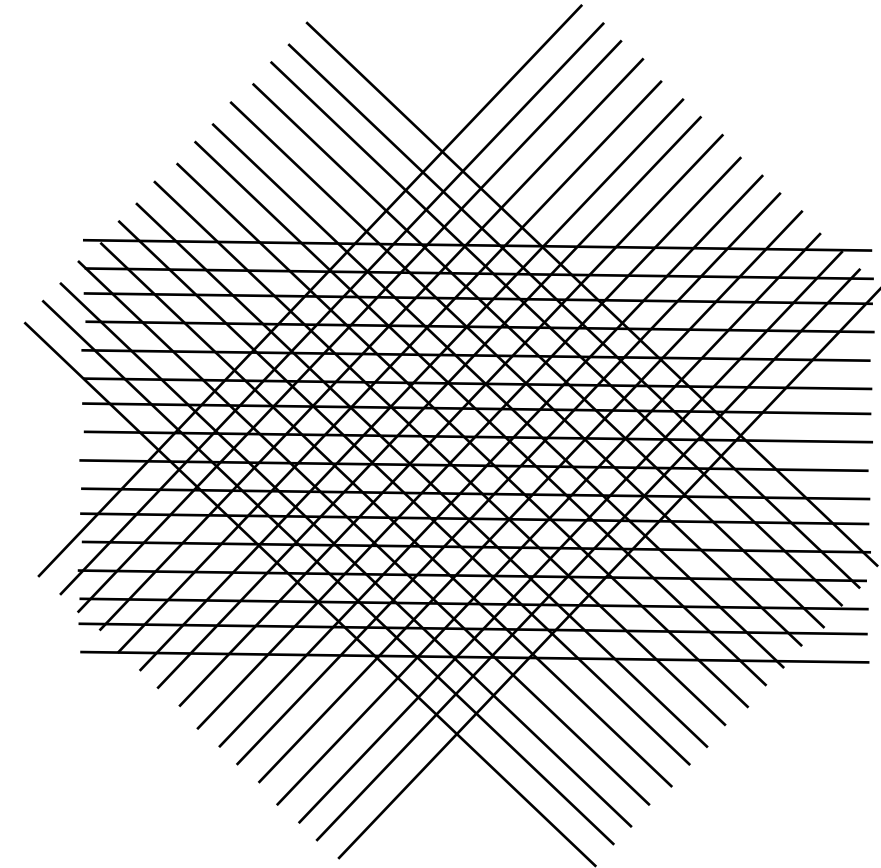


· 그리드의 활용

- 점의 시각적 차원의 변화를 보여질 수 있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
- 삼각형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리드를 활용.

-> 원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이전의 계획과 달리 삼각형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리드를 토대로 점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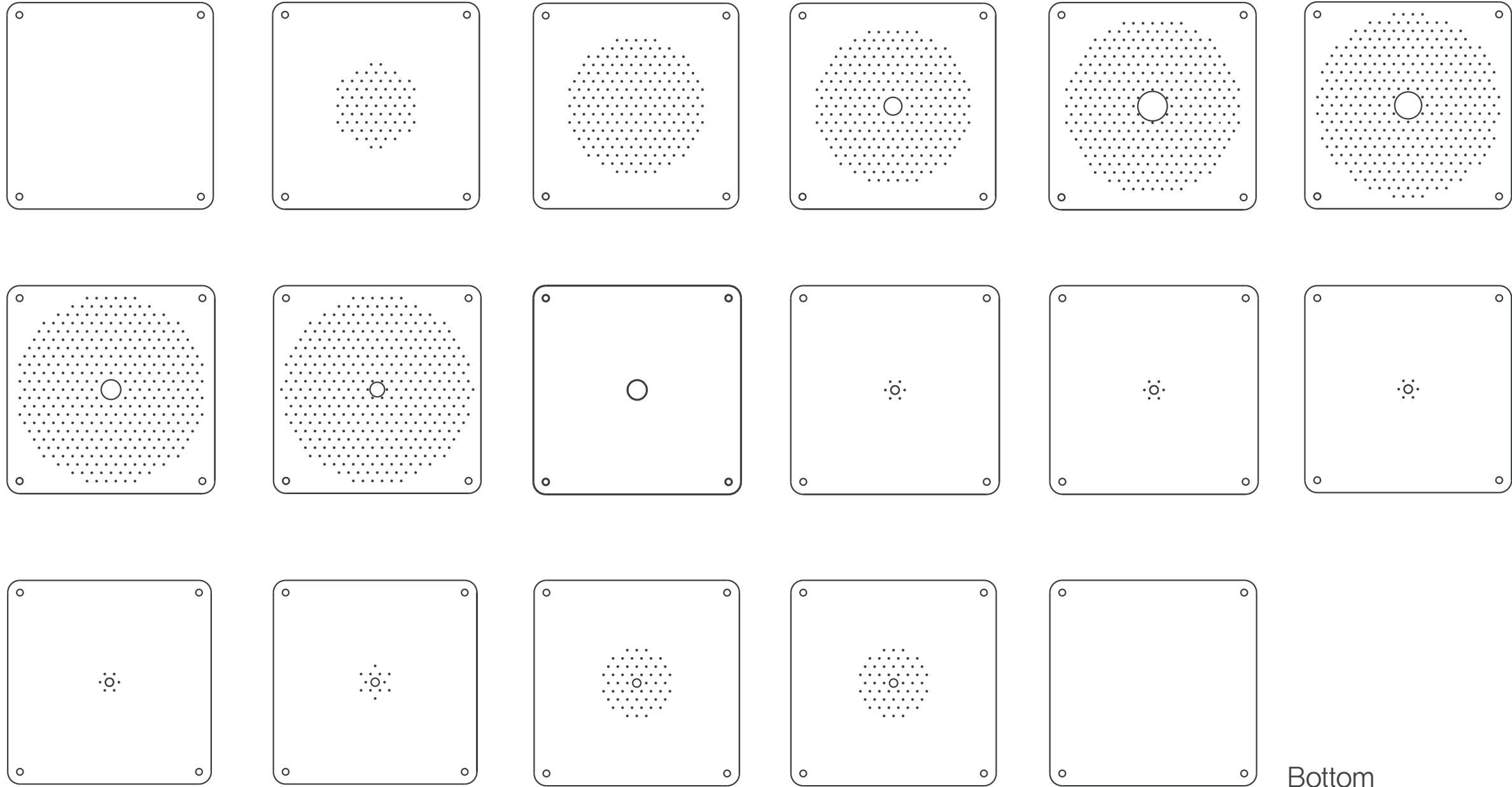
-> 차원의 변화가 컨셉인 만큼 그리드의 형태도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하학적으로 접근하여 복잡한 형태의 패턴을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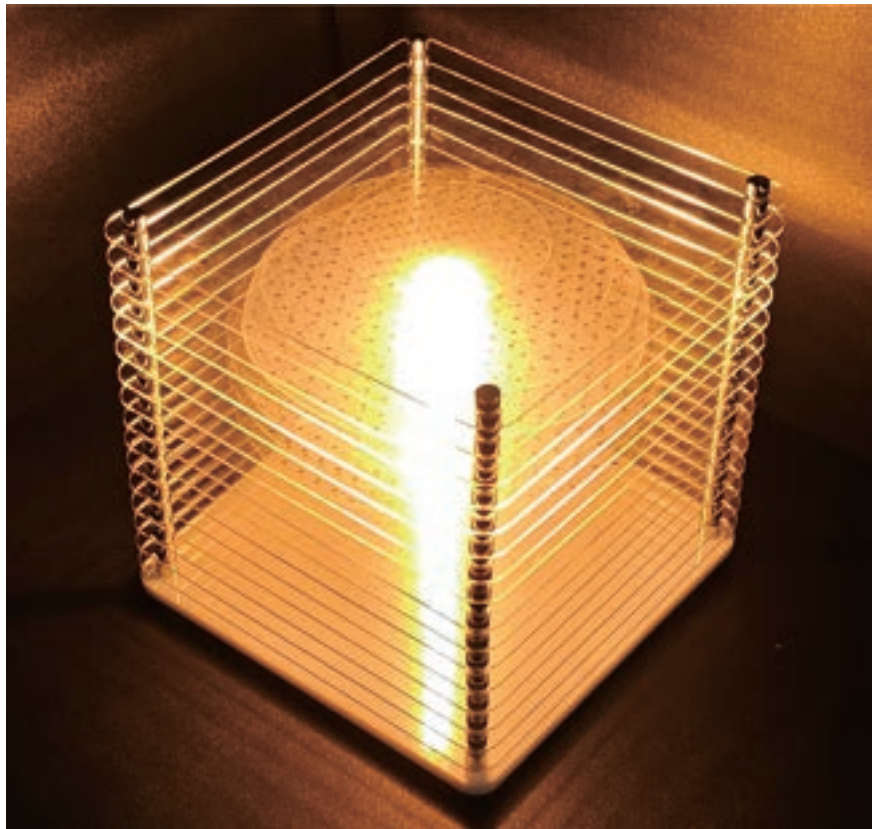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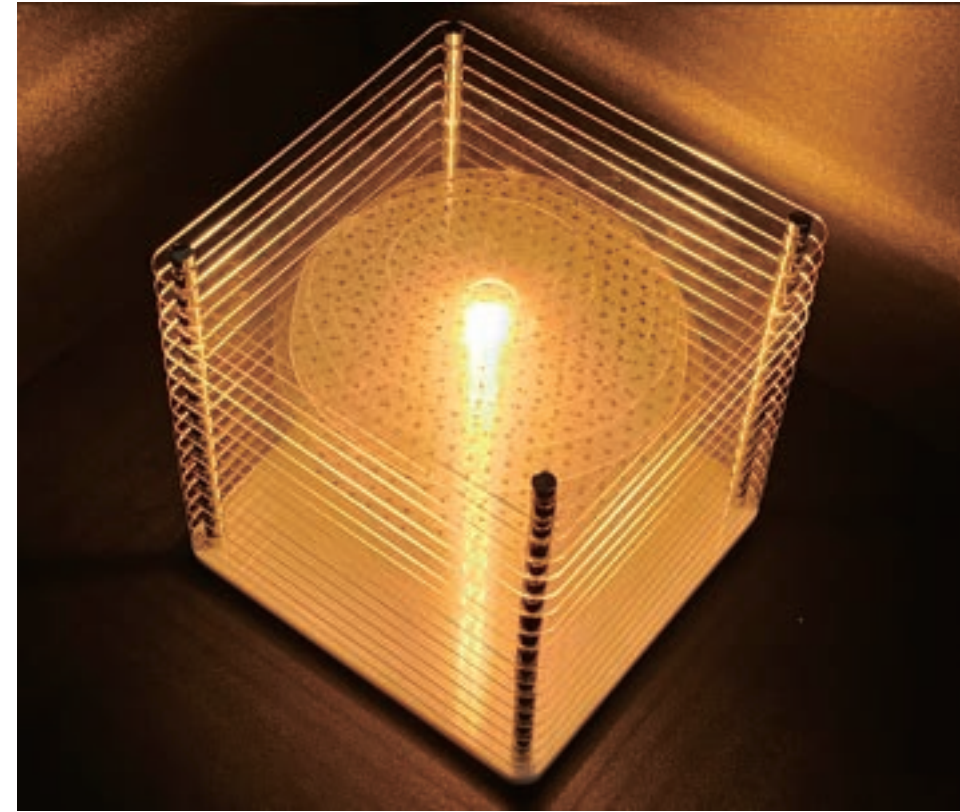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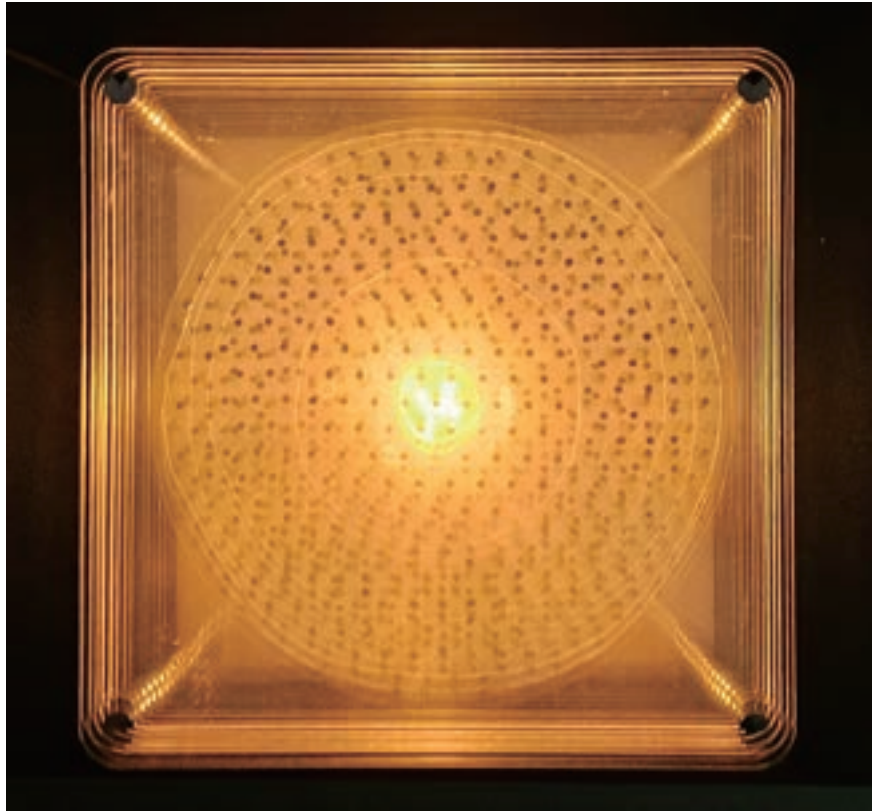
이를 통해 수 많은 점들이 합쳐지고,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시각적 차원의 변화가 보인다.
또 다른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냄으로써 기본 구성 요소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

Mass Plan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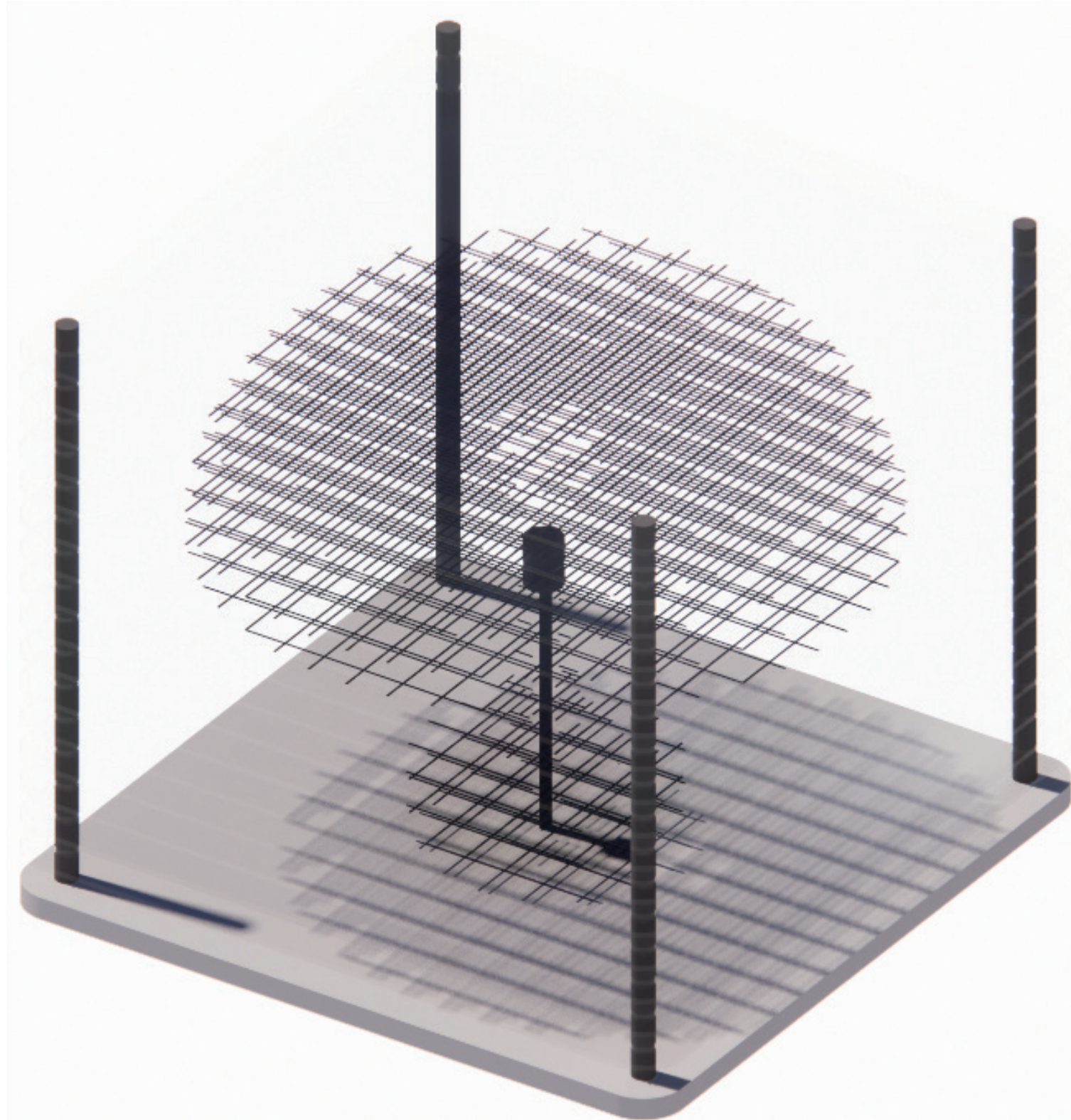


Model



Fondament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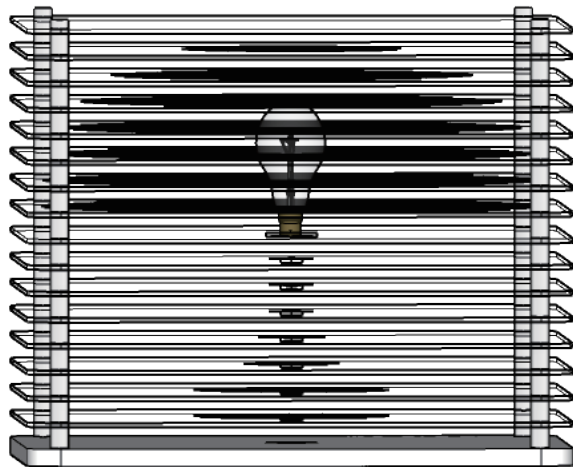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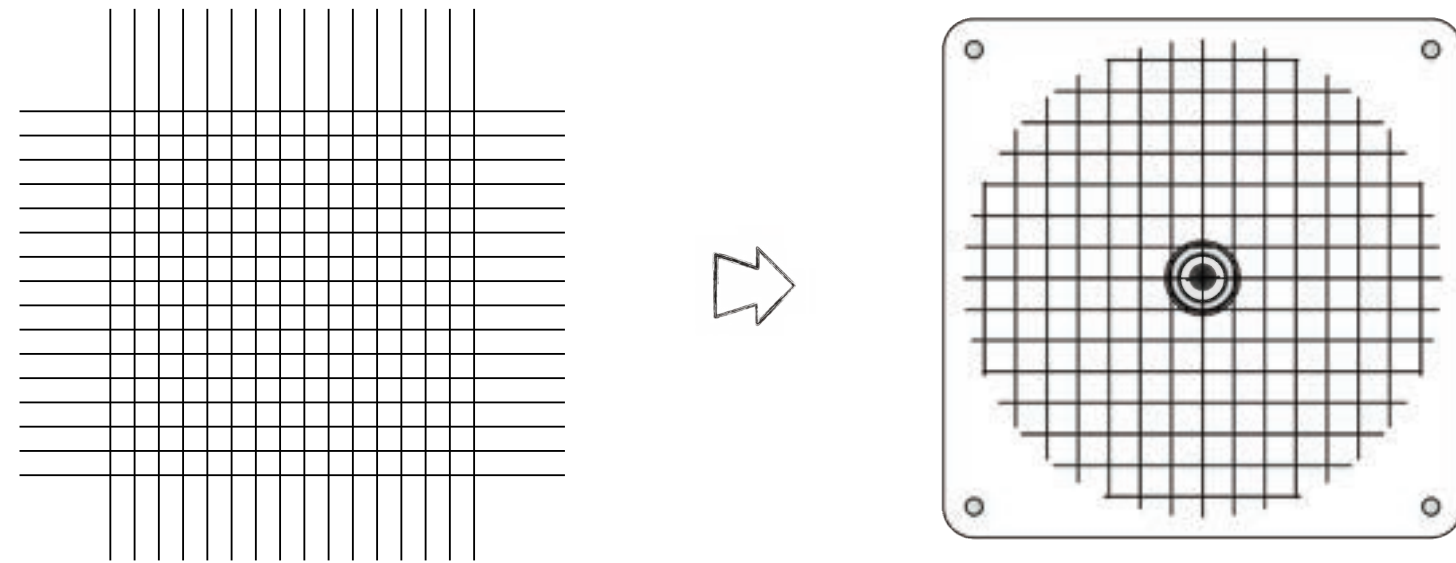
2. Line



Point

90° #직각 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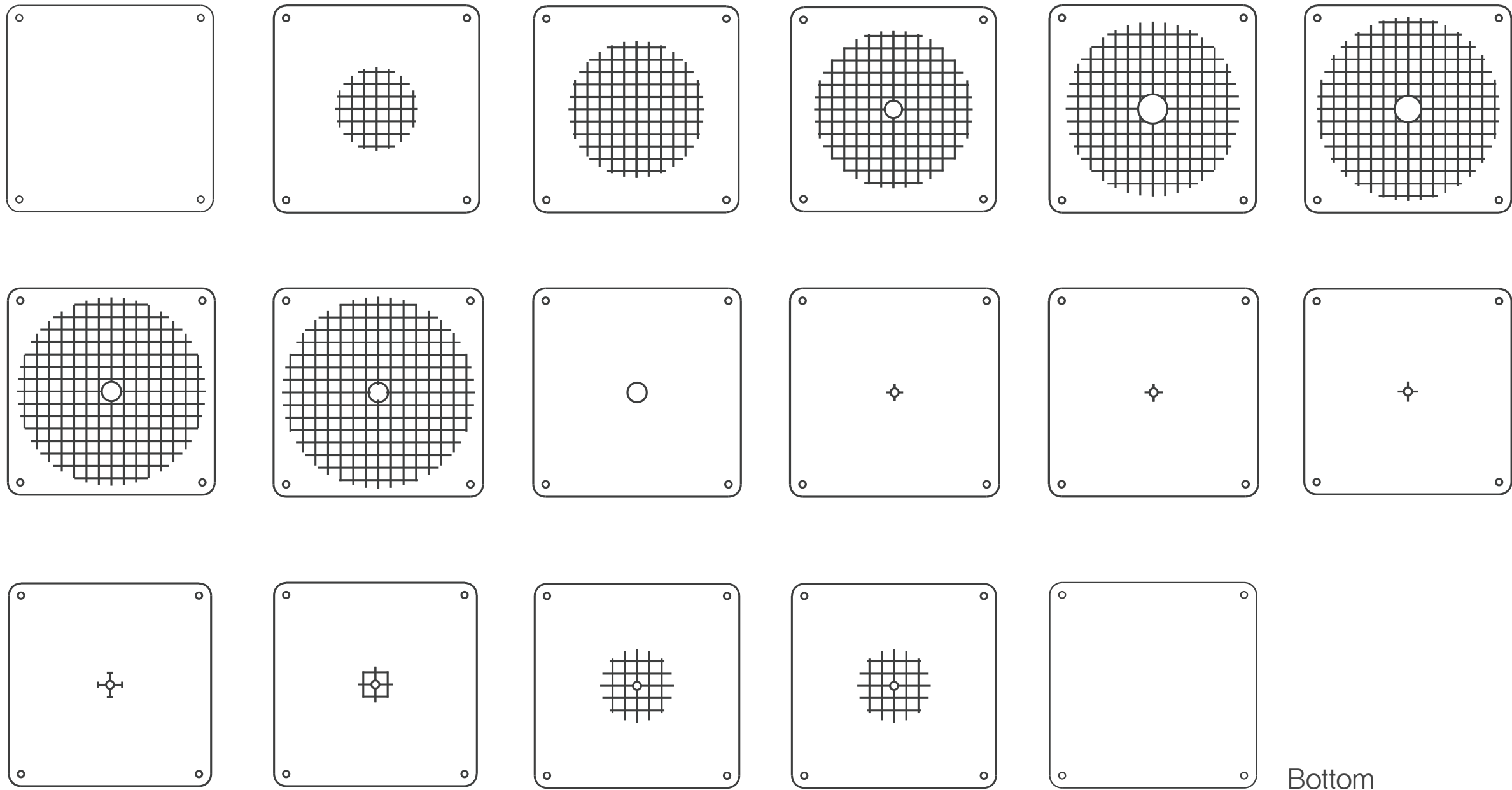
45° 그리드를 사용한 점과는 달리 전체 형태인 버섯 모양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직각으로 그리드를 배치하여 쌓아 올렸다. 250 x 250 사이즈의 아크릴 판에 직각 그리드를 올리고 조명의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리드의 중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원을 늘리거나 줄여, 아크릴 판을 쌓아서 전체를 보았을때 버섯 형태가 보이게 하였다.



조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빛을 넣기 위해서 제일 밑판을 라이트박스를 사용하려다가 아크릴 판에 그리드를 올려 쌓았을때의 무게를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조명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아크릴 판 가운데 조명 크기에 맞춰 구멍을 뚫었다. 뚫은 구멍들 사이로 전구, 전구와 연결된 소켓, 중간스위치, 전선들이 지나가며 평면에 쌓이는 그리드와 상반되어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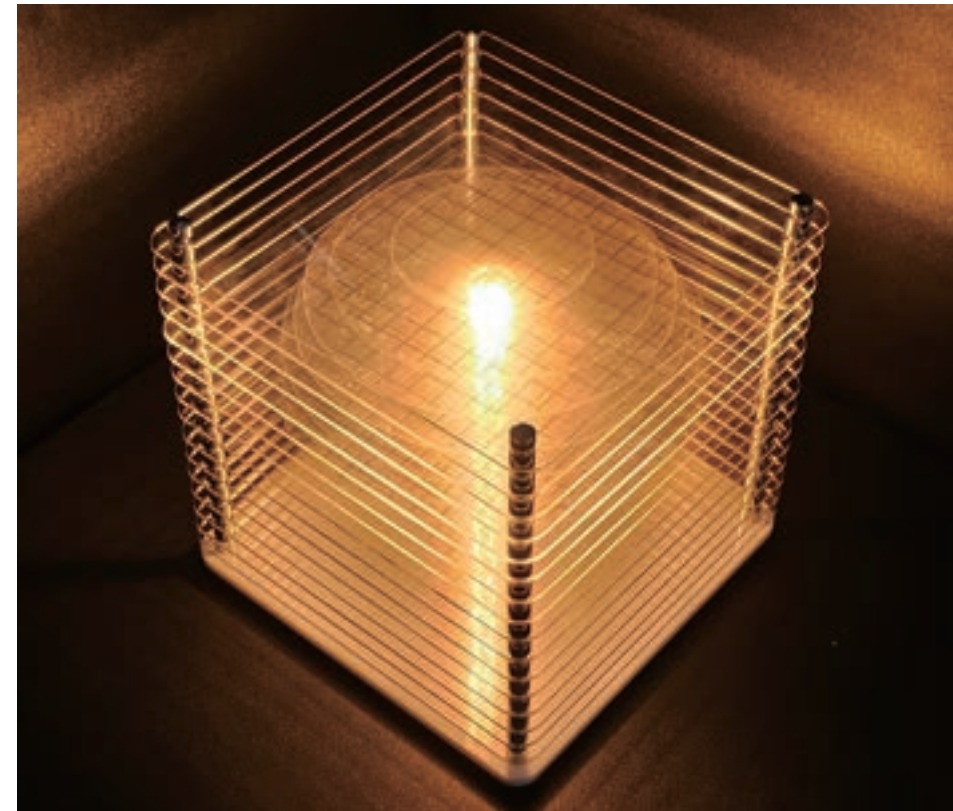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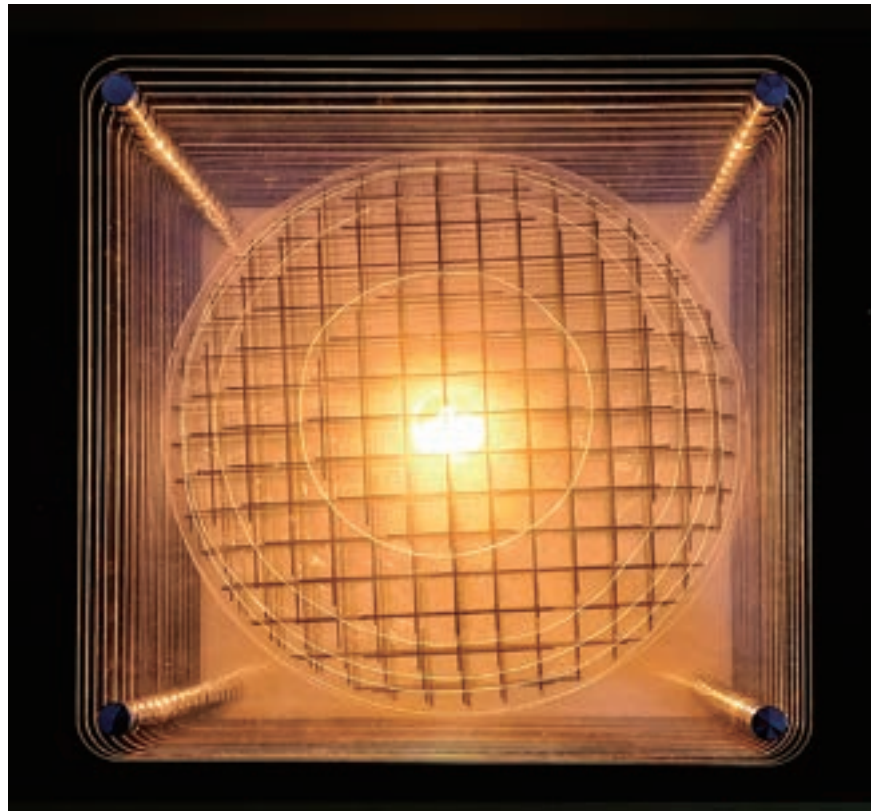
Mass Plan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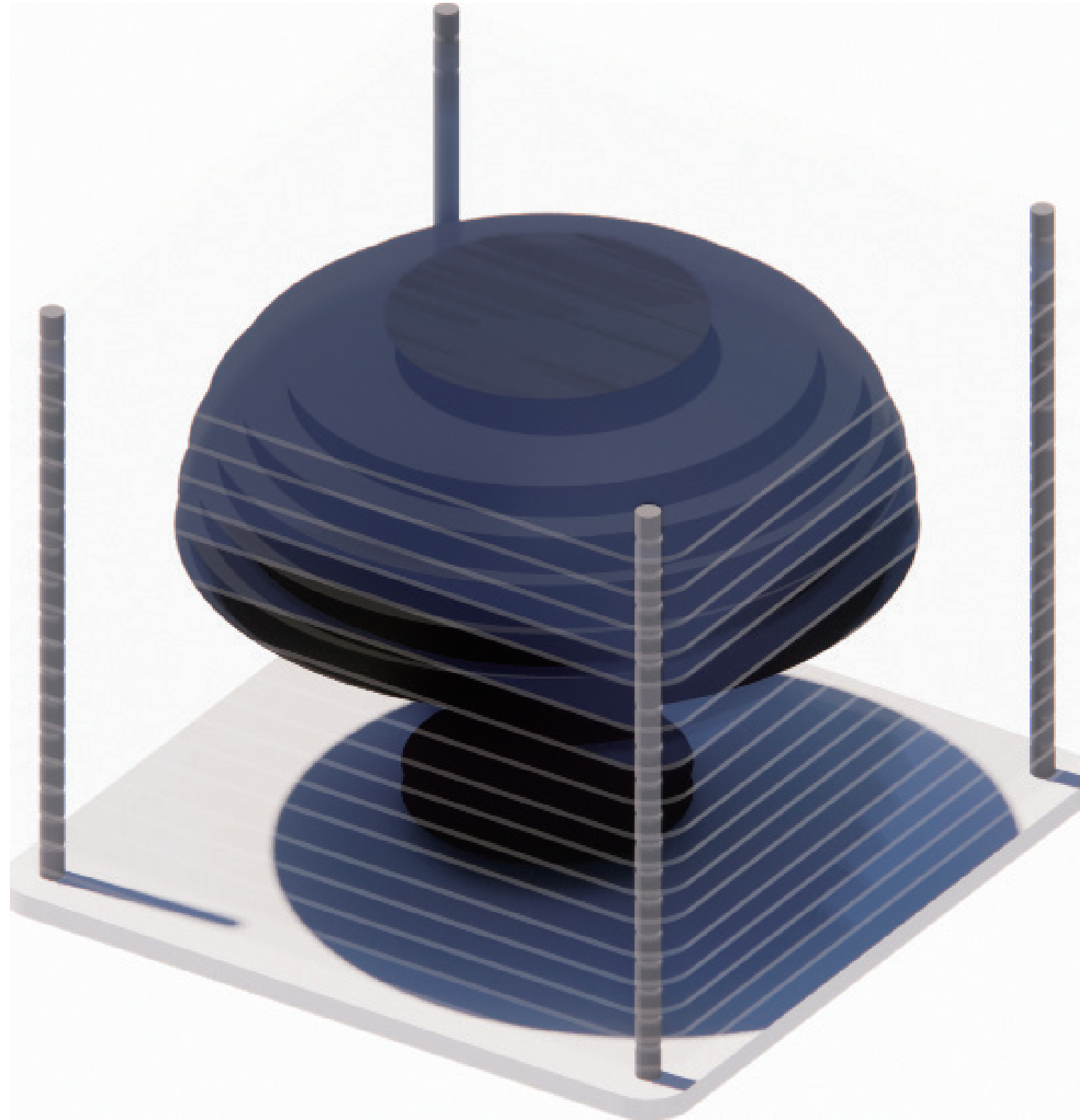


Bot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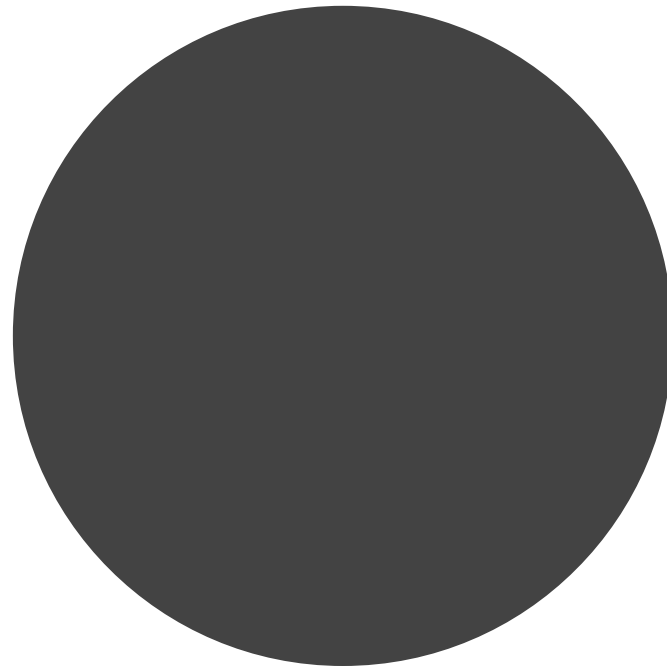
Model



Fundamento 2



3.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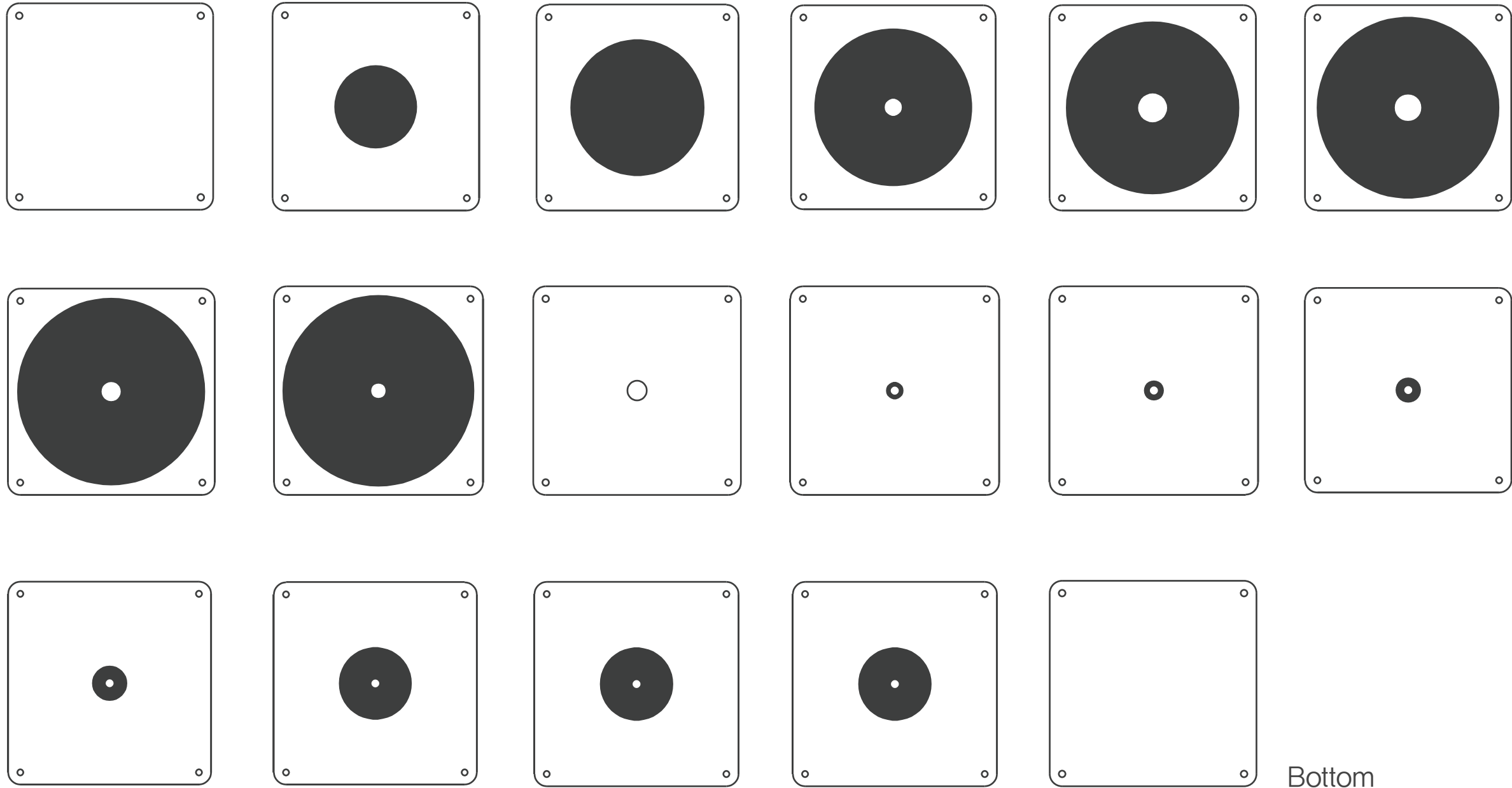


0차원에서 1차원으로,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또다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2차원 면'에 초점을 맞춰, 3차원인 입체가 되기 전 존재하는 2차원이라는 뜻을 적용하여 기초가 되는 점, 선에서 부터 시작해 물방울이 퍼지듯 원 형상의 면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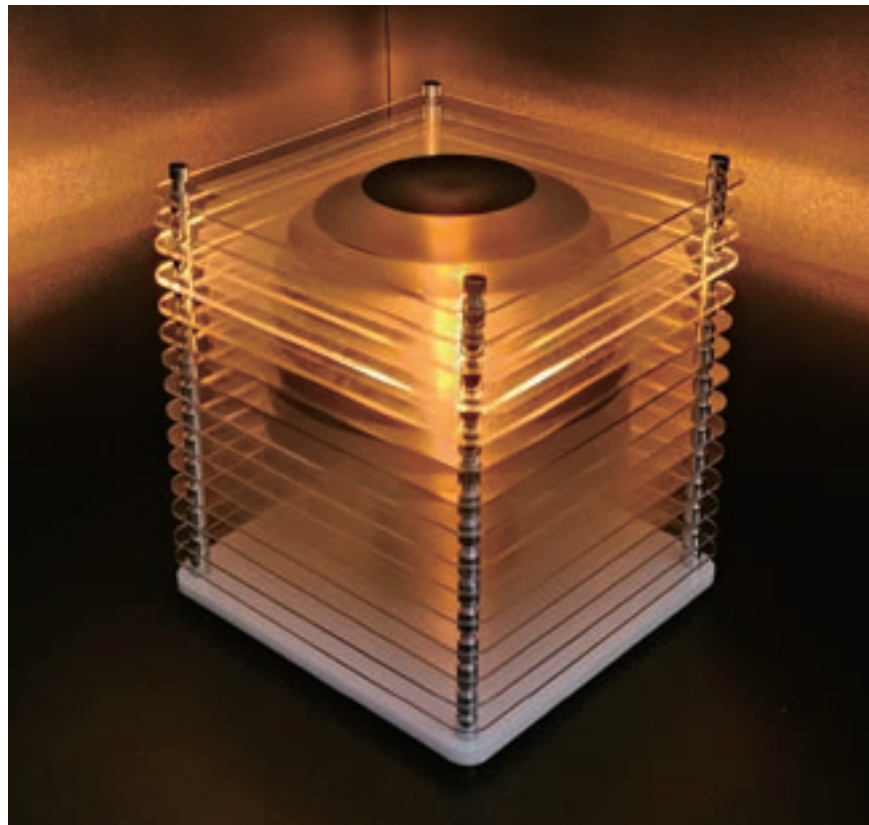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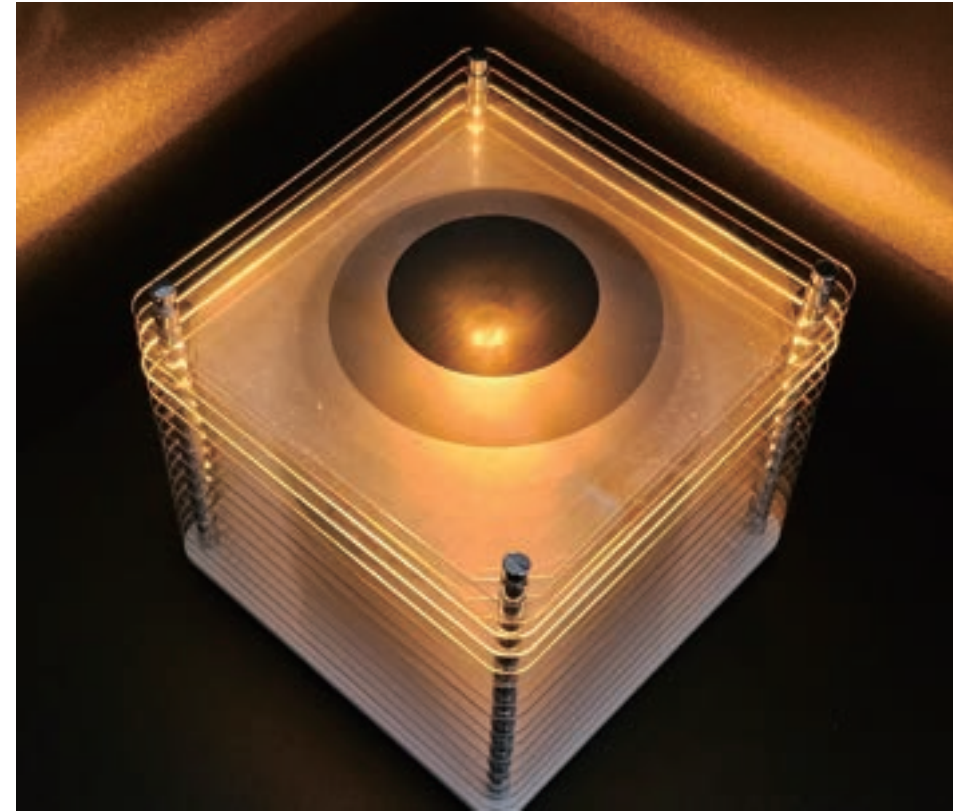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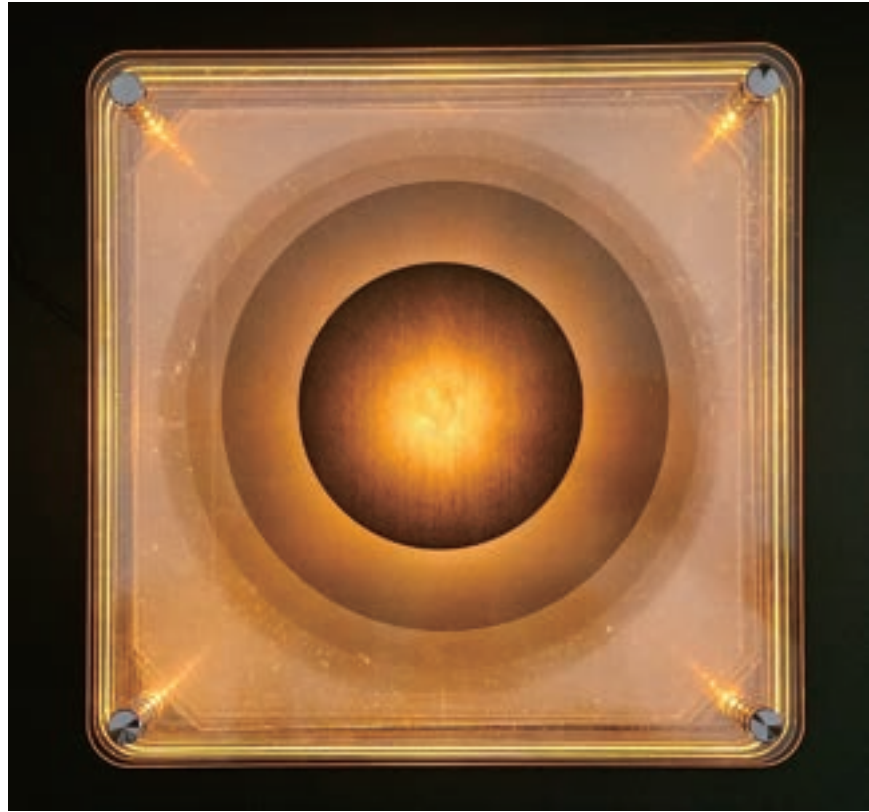
Mass Plan

Top



Bottom

Model



Material



Transparent acrylic



White acrylic



Stainless steel dabo



Edison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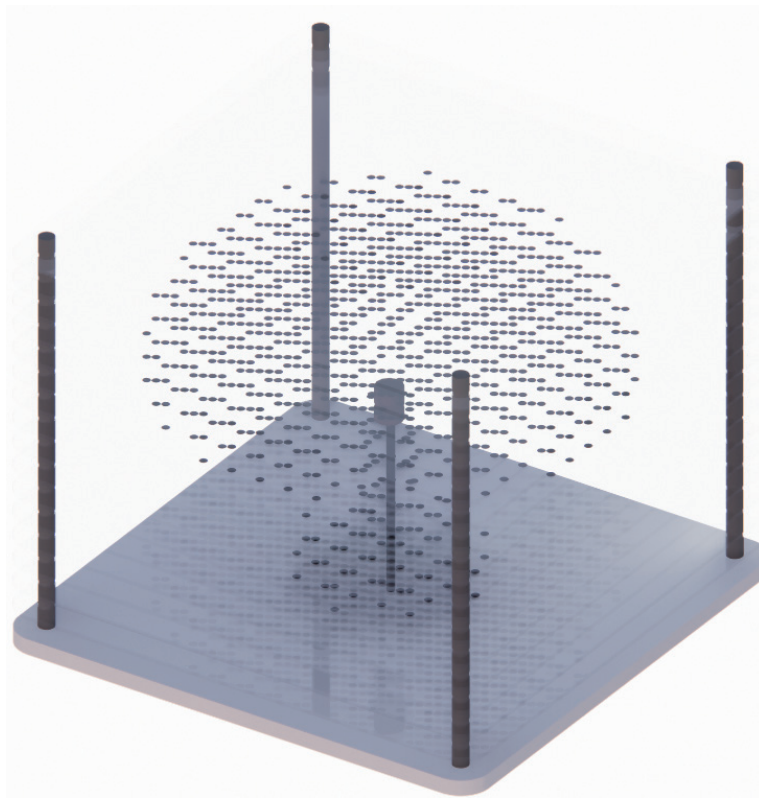
Fondaménto

/fɔndamɛ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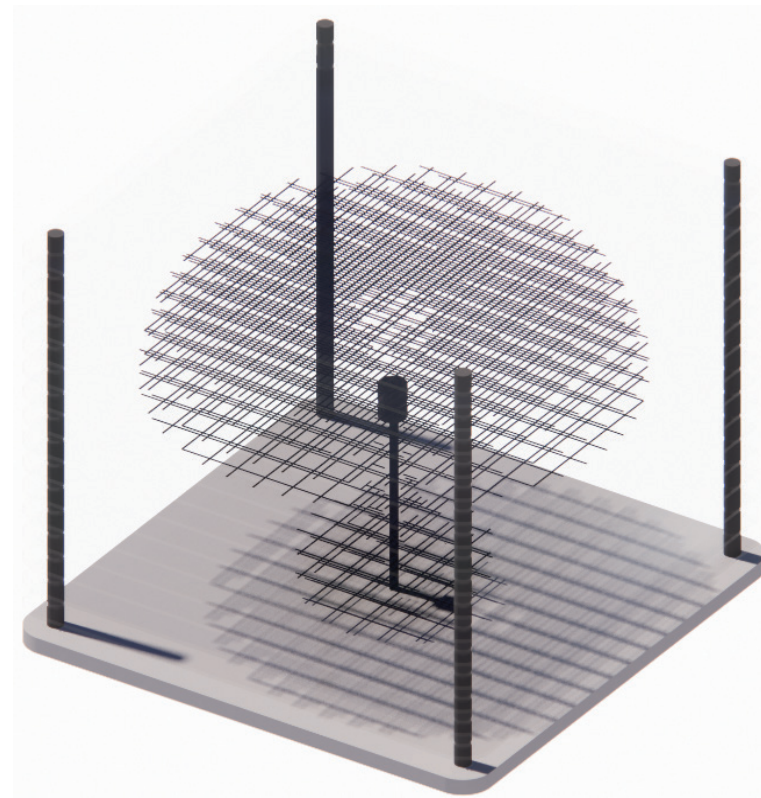
1.토대 2.기본적 요소

fondaménto는 이탈리아어로 토대, 기본적 요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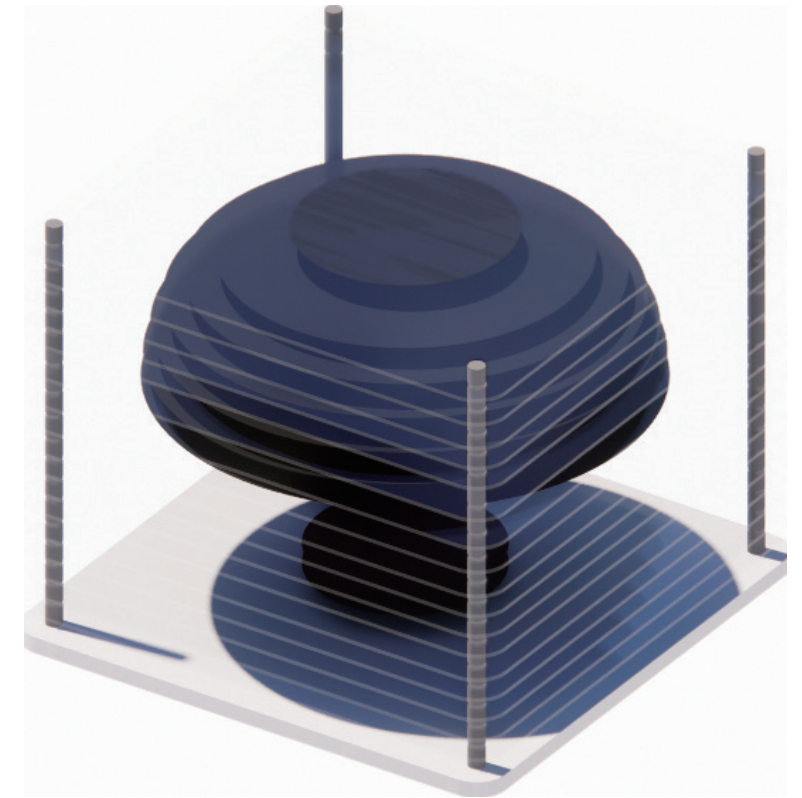
받침이 되는 흰색 아크릴 판을 토대로 투명한 아크릴 판이 쌓여 올라가는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제한된 크기의 투명 아크릴 판 안에서 점은 0차원, 선 1차원, 면 2차원으로 다양한 차원의 요소로 풀어냈다.



fondamento 0



fondamento 1



fondamento 2

Thank you